

내수 숨통 트이니 해외서 '제동'... 완성차 "산 넘어 산"

현대차 '아반떼' 실적건인 기대
기아차·지엠 신차 사전계약 돌풍

현대·기아차 美·유럽서 생산중단
내달 판매 반토막 전망에 '골머리'



▲기아차
신형 쏘렌토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RS

국내 완성차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판매 목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내수는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해외 시장은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에 맞춰 신차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내수 시장은 우려와 달리 신차의 사전 계약과 판매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월 중순 한국지엠이 출시한 중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트레일블레이저는 지금까지 출시 1주일만에 사전계약 6000대를 넘기며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출시와 함께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셀토스(1주일만에 3000대 계약)의 인기를 넘어서는 수적이다.

르노삼성은 지난 3일 예정했던 소형 SUV 신차 XM3 출시행사를 코로나19 우려로 취소하고, 대신 3~13일 2주일에 걸쳐 미디어 대상 소규모 시승회를 진행했다. 소형급에서는 보기 힘든 쿠페형 디자인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까지 갖췄다는 평가 속에 XM3는 지난달 21

일 사전계약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1만 5000대가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기아차도 지난 17일 준대형 SUV 쏘렌토 4세대 모델을 정식 출시하며 신차 경쟁에 가세했다. 쏘렌토는 지난달 20일부터 영업일 기준 18일 동안 2만 6368대가 사전계약되며 돌풍을 일으키는 중이다.

현대차도 17일 아반떼 7세대 신차를 공개했다. 출시행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할리우드에서 열렸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관중 없이 온라인 중계로 진행했다. 행사는 한국을 비롯해 북미, 중국, 호주 등 주요 지역에 중계했다. 5년 만에 완전변경된 아반떼는 파격적인 디자인과 넓어진 실내 공간으로 출시 직후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새 아반떼는 국내에서는 25일부터 사전계약을 받고 미국에서는 올해 가을부터 판매하며 현대차 판매견인을 꺾는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올해 초 첫 SUV 모델인 GV80을 출시한 데 이어 ▲9일 GV80 ▲가솔린 모델을 더해 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GV80은 출시 후 지난달까지 누적 계약이 2만 1000대를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출시 2~3개월 만에 올해 전체 판매 목표인 2만 4000대 달성을 마쳐 물량 공급이 달리는 실정이다.

제네시스는 30일에는 대표 대형 세단인 G80 신차를 내놓는다. 역시 코로나19 우려로 출시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국내 시장은 신차 출시와 완성차 업체별 코로나19 사태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정세를 되찾고 있지만 해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현대·기아차도 미국과 유럽 주요 생산라인의

가동을 멈춘 상태다. 미국의 경우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18일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앨라배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19일 셧다운에 들어갔다. 유럽에선 '하나의 유럽'을 포기하고 각 나라가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인력·물류 이동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생산 중단뿐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에서의 판매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앞서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지난 18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3월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5~2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밑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생산차질이 생기면서 현지에 함께 진출한 모비스, 현대제철 등 계열사 및 협력사 수십곳의 연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생산 가동 중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폴크스바겐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거의 모든 공장에서 2, 3주간 생산 중단에 돌입했고, 피아트크라이슬러도 이탈리아와 세르비아 등의 공장을 임시 폐쇄했다. 미국에서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가 생산 중단에 돌입하거나 중단 계획을 내놓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시장 안정에 27兆 투입

채권안정펀드 10조 등 포함
민간 금융권 참여 여부 '관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번 주 27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규모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회사들 중 일부는 증시의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증권시장 안정펀드 참여를 주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날 경우 피해액 보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 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6조 7000억원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자금


소진 추이를 보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고 그동안 채권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아예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P-CBO 프로그램도 6조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주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권시장안정펀드처럼 최대 1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금융권의 참여 수준이다. 은행들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요즘처럼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선뜻 참여할지 미지수다.

/나유리 기자 yul115@




당신은 어떤 길을 보고 있습니까?

확신을 갖고 힘있게 나아가는 **대회전?**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역회전?**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뱅크샷?**

프로는 어떤 순간에도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




공임없이 길을 찾고, 찾아내는 '당구의 길'처럼
신한금융투자도 수많은 변수와 치열한 경쟁에도 고객의 수익을 위해
새로운 **'금융의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수수료는 모바일 기준 0.189%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가 영업점 계좌 개설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0609호 (2020-02-12 ~ 2021-02-10)